



한국 민족주의와 서구 민족주의

김한식¹⁾

1. 들어가며

우리나라처럼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려운 역사의 길을 겪고도 민족의 자존성을 끈질기게 지켜 온 경우는 인류 역사상 그리 흔치 않다. 근대로 오면서 외세의 영향은 더욱 커지고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서구의 영향으로 뒤범벅이 됐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 민족자존의 문제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 속에 면면히 흘러온 민족의식을 오늘의 시각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토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인을 하나의 민족으로 이끌어 온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러한 힘을 응집시킬 수 있었던 민족의식 발현의 논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날 서구의 민족주의와 비교될 수 있는가? 비교된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러한 특징이 현대 민족주의 전개방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민족의식이 의미하는 실질내용을 “어떤 민족이 하나의 정치단위로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 그 민족의 대외적 독립성과 대내외의 구심력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려는 마음상태”로 정의해 두기로 하자. 여기에 포함되는 실질적인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민족단위의 국가에 대한 의미를 규명하는 일인데 민족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논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민족국가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며, 셋째는 민족이라는 정치주체가 다른 주체와 어떤 관계로 설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라는 뜻이 보다 강하게 풍긴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민족의식과 보다 관련성이 깊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상당한 자료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조선에 한정해서 보려고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17세기가 된다. 16세기 말 드러난 우리의 민족의식은 어떤 논리로 전개됐는가 살펴보기로 하자.

2. 논리전개의 특징

17세기 이후 주장돼 온 조선의 민족개체성 부각의 논리는 서학사상의 수용 정도, 서구 강국의 영향력 정도, 그리고 조선의 정치안정성 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로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주기론(主氣論)을 강조하면서 조선의 민족개체성을 내세우는 논리이다. 주기(主氣)나 주리(主理)나 하는 것은 당시 가장 중요한 사상적 과제였다. 주기의 입장일수록 기존질서의 변화를 인정하고 개혁을 암시하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데 비해 주리의 입장일수록 기존질서의 보완, 강화 속에서 상위자 중심의 상하관계를 강조하는 보수적 입장임을 의미한다. 당시의 정치이념이던 성리학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주리적 입장이다.

둘째는 관점의 상대화 논리이다. 중국과 조선 어느 나라가 중심이나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관점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평평한 땅 위에 중국이 중심인 줄 알았던 것이 서학을 통해 구만 리 밖 서양에 놀라운 문화를 이룬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지구가 평면이 아니라 둥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세계의 중심이란 정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의 상대화 논리가 제기된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면 중국이 중심이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면 조선이 바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처음 주장한 것은 1600년경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이었다.

셋째는 성리학 자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논리를 통해 민족개체성을 간접으로 부각시키는 논리이다. 성리학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을 수 없다. 다만 당시 사회 분위기로는 성리학은 절대시되고 누구도 이에 비판을 가할 수 없었다. 성리학의 위치가 이렇게 확고한 상태에서는 개체성 논리가 나올 수 없으며, 따라서 중국 중심의 보편질서에서 조선이라는 민족개체의 부각은 어려웠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성리학 비판이 조심스럽게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18세기 들어서는 유학이 이단시하던 불(佛)·노(老)와 동류시하기도 하고, 19세기는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유·불·도 합일론이 나타나는가 하면 불(佛) 중심의 유·불 상호보완론까지 대두한다. 이와 같은 성리학 비판은 이(理) 중심의 보편질서를 거부하는 뜻을 함축하고, 이러한 보편질서 거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조선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넷째는 안민 위주의 부국론이다. 공론만 일삼으며 형식논리나 따지는 지도층의 사고방식으로는 민족의 자존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백성을 위주로 부의 증대를 통해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민족의 자존을 지켜 나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는 개화사상, 동학운동, 3.1운동에까지 일관되게 나타났다. 용어가 바뀌거나 강조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민족주의는 서구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다음 몇 가지는 한국 민족주의의 방향설정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족의 존재의미가 달랐다. 서구 민족국가의 출현은 근대가 시작되면서 전제군주제 형태로 나타났고 그것이 프랑크혁명을 거치면서 국민국가 형태로 바뀌었다. 국민국가의 등장은 전제군주제가 공화제로 바뀌면서 확실해졌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처음부터 민족국가였다. 조선조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 그러니까 고조선 때부터 민족국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민국가의 성격이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하면 그 시기가 17세기 이후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먼저 이론영역에서 시작돼 점차 운동으로 확대돼서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왕제(王制)를 거부하고 공화제를 필수요건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달랐다. 따라서 서구의 역사과정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국민국가라

는 용어는 서구와 다른 과정을 겪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서구의 경우 민족국가와 국민국가의 갈등은 오늘날에도 상충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도 이런 갈등이 큰 원인 중의 하나였다.

둘째, 국민국가로의 성립내용이 달랐다. 서구의 경우 국민국가는 제1, 제2계급에 대한 시민계급의 승리에서 발단됐고 그것이 유럽 각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다한 혁명·반혁명의 와중에서 이루어진 것이다.²⁾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거부라는 데 초점이 주어졌다. 친중(親中)노선에 충실한 지도층에 대한 반발이 병행됐다고는 하나 중화사상에 대한 저항이 지도층에 대한 반발보다 강한 것은 아니었다. 그만큼 국민국가로서 중국에 대한 저항은 약했다. 그러나 청이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여기서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에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셋째, 민족에 쏟아지는 에너지의 정도가 달랐다. 서구에서 민족국가의 원동력이 된 시민혁명은 민족단위보다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의 바탕에서 나타났다. 자유주의라는 국제주의적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주의가 등장했다. 그만큼 서구 민족주의 속에는 저항적 요소가 많다. 예컨대 기존 봉건세력이 엄연한 세력으로 남아 있었고 인접 국가 전제군주들의 갖가지 방해가 있었다. 이탈리아가 사르디니아왕국을 중심으로 통일될 때 인접한 오스트리아 군주의 영향력이나 자기보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던 로마법황국(法皇國)이 끼친 영향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에 담긴 구심력은 우리에게 비해 약하다. 우리는 상위개체에 대한 하위개체의 저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민족생존에 관한 한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세력은 없었으며 그만큼 민족이 가지는 구심력은 컸다. 이 점은 서구의 국민국가(nation-state)가 서로 연합하거나 국제주의를 쉽게 용인하는 데 비해 우리 민족주의 운동은 국제적 협조나 세계적 안목이 약했던 것과 직접 관계가 있다.

끝으로 민족에 대한 자존성 평가에서 경제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 서구에서는 대체로 경제적 가치가 민족 자체보다 앞선다. 국민국가 형성부터 신흥 부르주아라는 하나의 경제계층이 주도했다. 국민국가의 목표도 기존 제1, 제2계급의 타파에 두었다. 서구의 민족주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경제적 변화에 따라 민족에 대한 응집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부의 축적에 대한 민족자강(民族自強)의 강조가 없지는 않았으나, 어디까지나 민족의 구심력이 훨씬 강하다. 한반도의 경우 긴 안목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경제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국제주의 운동이 민족의식을 능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민족 부각 논리에 새로운 면모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다. 이것 역시 국제관계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일본이 중국을 대신해 새로운 비교의 대상으로 등장하면서 이런 변화는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특히 서구의 근대화 모형을 그대로 따른 일본의 위력에 대해 몹시도 경계하고 증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일면도 있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으면서 이제는 서구의 모방형인 일본이 아닌 서구 자체의 강국인 미국의 영향력을 깊숙이 받게 된다. 민족분단의 아픔을 벗어나지 못한 채 17세기 이후 지속된 민족개체 부각의 전통적 논리는 서구 근대형의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 어떤 면에서 외형상으로는 한국인의 모습이나 내용에는 서구인보다 더 서구 근대성을 강하게 품고 있는 모습으로 바뀐다.

3. 전개방법상의 특징

조선 후기에 나타난 근대적 민족의식의 표현이 왜 서구와 다른 것은 한국문화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한국인의 오랜 삶의 방식이나 생각의 표현과 연관이 있다. 근대적 민족의식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상의 특징도 이러한 문화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대체로 다음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인의 근대적 민족의식은 외부의 억압에 대한 자존심의 발로로 발단됐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고대로부터 민족의식을 유지해 왔다. 그러던 것이 17세기 접어들면서 대중, 대일 항쟁을 계기로 민족구성원 전체의 주체적 자각에 의해 외부로부터 독립을 지키려는 의지가 내적 구심력을 확인하면서 나타났다. 실로 그것은 전 민족적이며 구체적이고 체험적이었다. 개개인의 생사의 갈림길이 민족의 보존과 직결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오랜 문화민족으로서 자존심의 발로라는 모습으로 부각됐다. 어느 특정 집단의 이해(利害)와 관계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 점은 경제적 조건에 따라 시민계급이 등장했고, 이렇게 등장한 시민계급에 의해 근대 민족의식이 나타난 서구의 경우와는 다르다.

둘째, 근대적 민족의식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계층 간에 하등의 무력충돌과 같은 갈등이 없었다. 쿠데타를 일으켜 기존 정치세력을 몰아내려고 한 일도 없고, 민족 주체세력이 되기 위해 다른 정치세력과 암투를 벌인 일도 없었다. 중화사상에 젖어 있던 지도층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았으나 그 불만의 표출은 호소였고, 오히려 난국의 해결은 기존 지도층이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서구와 매우 다른 점이다. 근대 민족국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전제군주국가의 성립은 하나의 제국이던 로마제국과의 충돌에서 승리함으로써 얻은 것이며, 전제군주국가에서 여러 개의 국민국가로 정치주체의 범위가 확대된 것도 많은 내적 투쟁과 혁명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었다. 말하자면 서구에서는 민족의 구심세력이 바뀔에 따라 격렬한 내부 진통을 겪었음에 비해, 우리는 강한 계층질서가 존재한 19세기까지도 민족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층 간의 내적 충돌은 없었으며, 오히려 기존 중심세력이 주동이 되고 여기에 다른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형태였다.

셋째, 민족국가가 하나의 종합적 기능주체라는 것을 모든 개체가 서로 인정하고 이를 존중했다. 한민족이 전비를 갖추어 중국이나 일본을 쳐서 영토를 점령하고 우리 문화에 동화시켜 우리의 제국을 건설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병자호란 이후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이 서렸지만, 중국에 이기는 힘을 기르되 중국을 정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려고 했다. 동학혁명도 마찬가지다. 외군을 몰아내자는 것이지 그들 국가를 점령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역시 국제사회에서 조선과 일본이 동반자로서 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었지, 일본을 저주하거나 일본을 점령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 민족의식 형성에 중대한 이정표가 되는 실학, 개화사상, 동학운동, 3.1운동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우리 민족이 떳떳한 독립주체로 등장할 것과 우리 민족의 적대세력을 인정, 동반자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 점은 명백히 서구와 다르다. 서구 민족국가의 국제관은 서로 공존의 마당을 만드는 데 있지 않았다. 국민국가끼리 공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였다. 부르주아가 주체세력인 국민국가가 봉건세력을 막는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부르주아가 주체세력인 국민국가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웃 민족국가와 서로 협력하는 경우였다.

끝으로 민족국가가 등장하는 과정상의 특징으로 화합과 협동이라는 방법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민족국가의 등장에는 내적으로 그 담당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나 외적으로 다른 민족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데 있어 화합과 협동의 방법으로 일관했다. 폭력적 방법이 거부되고 서로 배타시하지 않았다. 왕(王)과 군(君), 그리고 백성이 민족국가의 이익과 관련해서 서로 대립투쟁하지 않았다. 농민과 상공인 간에 갈등과 마찰이 있지 않았다. 선비와 상인 간에도 모순과 증오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서로는 마치 몸의 각 부분처럼 기능개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본다. 특히 외적의 내침에 대해 한민족은 무서운 민족공동체의 저력을 보였다. 왕은 왕대로 고유한 기능이 있고 서민은 서민대로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이들 기능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본 것이다. 여기서 왕제가 거부되지 않았고 선비와 상공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조화될 수 있었다. 전국에서 농민이 모여들어 죽음을 각오한 구국의 집단행동을 했을 때도 왕에게 올리는 상소가 고작이고 왕의 자의적 선치를 기다리는 부복의 건의에 그쳤다. 우리의 경우 민족국가가 등장하는 과정은 폭력과 갈등이 아니라 협조와 조화였다.

이 점은 서구와 대조적이다. 서구 민족국가는 담당세력이 바뀔 때 늘 격렬한 투쟁을 동반했다. 제1, 제2계급에 대한 부르주아의 피로 물들인 승리는 이를 잘 말해 준다. 심지어 1, 2계급에 대해 공동으로 싸웠던 부르주아와 노동자들이 얼마 가지 않아 (1848년 6월혁명에서처럼) 서로 죽이는 시가전을 벌였다. 서구 민족국가의 등장에는 위로부터의 보수세력에 의한 혁명이든 부르주아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혁명이든 갈등과 투쟁의 진통을 겪었다. 독일의 민족국가 형성은 전자의 경우에 속한다. 이는 부르주아 세력이 아니라 비스마르크의 보수세력에 의한 것이었는데, 주로 대외적으로 얻은 군사적 승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유주의 세력은 미약했으며 그나마 지역, 종교, 계급의 대립으로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었다. 이것은 그만큼 독일의 민족주의가 자유주의적이라기보다는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후일 나치 같은 극우 민족주의가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탈리아가 민족국가로 통일을 이룰 때에는 사르디니아왕국을 중심으로 하되 공화주의를 고집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정이 파시즘이 등장하는 배경이 됐다. 지도층의 지혜로 무혈(無血)로 슬기롭게 넘긴 영국이 예외이긴 하지만, 프랑스도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프랑스에서 민족국가의 형성은 격렬한 대립과 투쟁을 동반하면서 부르주아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혁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부르주아 혁명은 그만큼 철저했다. 요컨대 서구의 민족국가 형성은 위로부터든 아래로부터든 혹독한 혁명과 반혁명을 거치면서 등장했다. 이러한 무력 또는 투쟁에 의한 방법은 민족국가가 유지·발전할 때에도 활용된다. 이들 민족국가는 내적으로는 시민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유주의를 구가하면서도 외적으로는 사실상 제국주의 정책을 수행해 식민지를 힘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식민지 강제분할이 끝나면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부딪쳤고 영국과 독일이 충돌했으며 그 여파로 1차대전이 발발했다. 실로 프랑스가 제3공화국 이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시장을 넓히고 식민지를 확대하는 힘에 의한 제국주의의 성공에 기인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근대 민족의식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시점을 17세기 이후로 잡았을 때 이러한 민족의식은 일단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에서 발단했고, 민족문제와 관련해서 내부 계층 간의 격렬한 대립이나 투쟁은 없었다. 오히려 지도계층을 중심으로 모든 계층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민족 자존책이 추구됐다. 이런 점은 부르주아 계층의 형성에 의한 경제적 신분상의 이해에 얽혀 격렬한 내적 대립과 투쟁의 과정으로 치달은 서구의 경우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운동이 가진 국제관도 외부의 억압세력을 제어하거나 점령이 아닌 동반자가 되는 데 목표를 설정한 점이나 민족국가로 부각되는 과정에 내외적으로 협조와 조화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것 역시 서구 근대 민족국가가 서로 부단히 힘을 과시함으로써 대결관계로 치달은 것, 그리고 민족국가의 주동세력 간에 또는 민족국가끼리 격렬한 대립과 투쟁이 따랐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다만 서구에서 일어난 혁명의 성격 중 보수 측에 의한 위로부터의 혁명유형과 우리의 민족의식 부각내용은 비슷하다. 그러나 그 추진방법에서 갈등이나 투쟁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이 점 서구의 보수적 민족국가가 나치즘, 파시즘 등 전체주의로 나타날 수 있었음에 비해, 우리는 온건하지만 짙은 색깔의 권위주의로 끝난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 민족의식의 발현과정상 특징은 일제 식민정치가 본격화된 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해 해방을 거쳐 장기간에 걸친 남북의 대결을 통해 거의 사라졌다. 그래도 4.19혁명에는 그런 흔적이 일부 남아 있었으나, 군사정부 수립 이후 서구 근대 국민국가의 전개과정을 그대로 닮아 가기 시작했다. 언제나 기존질서는 거부되고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은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예리하게 첨예화되며,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경쟁의식, 적대의식이 편만해져 민족의식은 편견과 우월의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일종의 콤플렉스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4. 민족과 개인의 관계

민(民)개체가 다른 정치적 개체와의 관계에서 갖는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개체는 근본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설정돼 있다. 성리학에서 상위개체와 하위개체가 서로 불평등한 관계로 설정돼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체를 서로 평등한 관계로 보는 시각이 나타난 것은 17세기 이후이다. 이렇게 나타난 개체의 평등성 논의는 19세기에 들어와 개체의 존재의미부터 재정립하기 시작한다. 개체가 평등하다는 의미는 근대에 올수록 더욱 구체화되는데, 하위개체의 뚜렷한 자기인식과 더불어 국민적 자각을 고취하는 바탕이 된다.

둘째, 개체 간 연계가 기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의 중심개체로서 민(民)은 그 주류가 농민이든 부르주아든 사회의 다른 집단이나 세력과 배타적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협동의 관계로 설정된다. 이러한 의미는 성리학의 경직성이 무너질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농민과 선비가, 관료와 부르주아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민족이라는 대의(大義) 앞에 갈등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논리이다.

개체 간 연결의 근거를 기능에 둔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체의 존재의미가 그 개체가 지닌 고유한 기능 때문이라고 했을 때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개체는 존재의미를 상실한다. 이는 군(君)의 절대권위나 세습적 전통에 비판을 가하는 무기가 된다. 물론 개체 간의 기능적 평등이 수적인 산술상 평등이 아니라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평등하다는 주장은 우리에게 많은 암시를 준다.

셋째, 기능개체의 연결이 유기체적 성격으로 묘사되고 있다.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인 각 개체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에서 밀접한 관계란 주종(主從)의 관계가 아니라 기능상 상호보완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몸과 같다. 심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새끼발가락

이 하는 일은 하지 못한다. 새끼발가락에 이상이 생기면 그것은 곧 몸의 각 부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끼발가락이 자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것은 그 발가락 자체가 존재하는 의미요 몸 전체의 성장과 직결된다. 몸의 각 부분은 그 기능상 서로 도우면서 연계돼 있는 것이다. 각 기능개체는 마치 인체와 같은 유기체적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기능개체의 관계를 유기체적 성격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국 민족주의의 성격에서 의미 있는 특징의 하나이다.³⁾

한국 민족주의의 개체 간 연계관계는 서구 근대의 민족주의와 구분된다. 서구의 민족국가 형성과정에도 평등은 있다. 역사전개의 원동력이 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더불어 평등을 절대적인 가치로 내세운다. 처음 절대군주와 시민층이 협력해 봉건지주를 무너뜨릴 때에도 평등의 이념이 핵이고, 시민층과 노동자가 서로 협력해 절대군주를 무너뜨린 것도 평등의 가치 때문이다. 1830년 이후 노동자계층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1848년 6월혁명으로 치달을 때 어제까지의 동지였던 시민과 노동자층이 서로 가슴에 총을 겨눌 때도 서로 평등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서구 민족주의에서 나타나는 평등은 매우 산술적인 평등이었다. 사람마다 같아든지 사람의 지지 수에 따라 중대 결정이 판가름나는 식의 산술적 평등이었다. 그러나 이는 보다 많은 수의 사람을 평등의 대열에 포함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질적 평등의 의미로 승화시키지는 못했다. 때문에 평등이 이루어지자마자 서로 다투고 마는, 그리하여 상대를 죽임으로써 자기 민족의 자유와 평등이 향유되는 식이 돼 버렸다. 민족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미개발국을 식민화하는 평등성이 조금도 거리낌 없이 전개되기도 했다. 여기서 저마다 고유한 기능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 기능이 모든 소외된 민족에게 희생(回生)의 성격을 띤 한국 근대 민족사상은 재음미돼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러한 한국의 민족사상이 일제의 식민과정이고 난 후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기능주체로서 개체의 평등성은 산술적 평등의 확대 속에서 힘을 잃고 대립과 투쟁의 관계로 치닫고 있다. 개체 간 기능에 의한 상호보완, 그리고 그것의 인체와 같은 유기체적 성격의 의미는 물리적 힘의 대결과 경쟁논리로 바뀌면서 적의와 불신의 관계로 변져 가고 있다. 일제 하에서 그러했고 해방 후 현재에 이르면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져 가고 있다. 민족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내부분쟁이나 남북한 간에 통일의 모형을 염두에 둔 주체세력의 설정, 그리고 인근의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도 물리적 힘의 대결과 경쟁의 논리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5. 충격적 변화: 그 원인과 내용

3.1운동을 기점으로 6.25동란 등 현대로 오면서 큰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다. 종래의 민족의식이 내용이나 형식에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다. 근 3백 년간 지속돼 온 한국 민족주의의 특징이 왜 3.1운동 이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무력투쟁을 통해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1919년에 일어난 항일 민족운동은 우리의 근대사에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 운동은 우리나라 근대사상인 실학이 개화사상으로 이어지면서 동학운동이라는 거국적 행동화의 경험을 거쳐 20세기 초반의 시대상황을 맞추어 전개된 것이다. 3.1운동은 사상내용과 운동양태에서 근대화에 관한 우리 나름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3.1운동은 동시에 이미 서양화(근대화)된 일본을 종래의 방법으로는 이기기 어렵다

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도 됐다. 일본에 대항하는 데는 평화적 저항으로는 한계가 있어 무력에 의한 저항이 불가피하다는 다짐의 시점이 된 것이다. 무력저항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거칠어질수록 저항의 강도도 높아진다. 지하화되고 테러의 성격도 나타난다. 해방 후 일본에 대한 미운 마음이 순화되고 안정을 찾기도 전에 이제는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무서운 살육전이 일어난다. 신속하게 대량 살상하는 혹독한 전쟁의 참화를 거쳐 날카로운 군사적 대치가 50년이 넘도록 계속된다. 한에 한을, 증오에 증오를 쌓아 가는 긴 세월이다. 결국 거의 한 세기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극한의 위기감 속에서 생존을 위한 무력투쟁이 계속된 것이다. 남은 것은 미움과 갈등이다. 이러한 증오와 갈등은 때로는 일본이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향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향하기도 한다. 증오와 갈등은 협동과 조화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 민족주의를 변질케 한 중요한 원인이다.

둘째, 해방 후 처음 국제무대에 나선 한민족은 민족분단의 아픔을 안은 채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싸움의 최전방 전선이 되기 때문이다. 17세기 이후 실학사상가들에 의해 시작된 개방정책은 수구파 세력에 의해 계속 차단됐다. 국제무대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일제 하에서 항일의 방편으로 시작되고 3.1운동이 있고 난 후부터였다. 그 대상국은 주로 중국과 미국, 소련이었다.

중국의 영향이 어떤 다른 나라보다 컸으나, 중국 자체가 1842년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에 의해 유린되고 1895년 청일전쟁으로 일본에 패배한 뒤였다. 그 후 줄곧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실질적으로 힘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게다가 1949년 중국공산당에 의해 대만으로 쫓겨나 그 영향이 클 수 없었다. 6.25전쟁 때 중공군의 파견으로 중공이 한반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나, 역시 한국인의 관심을 끄는 나라는 미국과 소련이었다.

2차대전 이후 미·소는 냉전체제의 조정자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중심세력이 된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의 힘에 의해 분단이 되고 전쟁이 발발한다. 이데올로기가 지니는 단순성, 배타성, 혁명성⁴⁾은 무서운 증오의 열기를 한민족의 가슴에 불어넣게 된다. 미국의 강력한 정치·경제·군사적 압력과 소련의 혁명적·투쟁적 기치가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 미국은 남한 민족주의의 성격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군사·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정치문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군사적으로 한국군의 역량이 커 가고, 특히 경제적으로 한국인의 저력이 드러나면서도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 갔다. 해방 이후 남한의 정치인들은 자체 분열하고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얻지 못하자 더욱 미국에 의존했다. 북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역시 엄청났다. 북한은 중소 갈등에 힘든 중간의 줄타기 입장을 유지하고 폐쇄사회로 인한 부작용으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치·군사·경제 면에서 소련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 따라서 미·소를 주역으로 해서 만들어진 남북의 분단은 계속 이들 강국의 강력한 후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치로 이어졌다. 이러한 점이 남북의 민족주의 또는 민족의식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서구 근대형의 영향을 한국인의 민족의식 속에 깊숙이 심는 결과가 된 것이다.

셋째, 일본에 오랫동안 저항했으면서도 일부 일본을 모방하려는 의식이 있었다.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하기 직전에도 세계의 선진문화를 배우는 대상으로 일본을 선택하려는 경향은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3.1운동 이후 일부 친일세력은 물론 항일의 강한 민족의식 속에서도 일본을 부러워하는 심리상태가 생기기 시작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던 일본이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한 것이 신기하게 보였다. 이러한 의식은 한민족을 열등의식으로 몰아가려던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 가속화됐고, 독립 후 친일세력을 역사적으로 평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들을 활용하면서 그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일

본인의 군국주의적 과단성, 결단성, 그리고 반대자에 대한 보복심 등이 은연중 한민족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잇달아 나타난 6.25전쟁이 실습의 기회가 되어 더욱 가속화됐다. 특히 서구의 근대화과정을 답습한 일본의 근대문화 속에서 은연중 서구 근대성의 면모를 수용했다. 식민 지배 하에서 강제로 일어만을 배우고 다른 외국어를 활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당시 한국인에게 서구에 대한 접촉은 주로 일본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일제가 종말을 고한 후, 그러니까 독립을 이룩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도 우리 학계는 일본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글 속에는 일본인의 논문 한두 편 정도라도 인용을 해야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인의 뇌리에는 일본 군국주의를 통해 서구 근대문화가 면면이 입력됐는데, 이런 현상이 민족 의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끝으로 서방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양을 오랑캐 중에서도 오랑캐로 생각했던 조선의 전통적 사고는 19세기 중엽, 특히 동학운동을 계기로 절정에 달했다. 동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서학에 대한 저항의 뜻에서 지어졌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 하에서 특히 3.1운동이 일어난 후 서양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일본이 저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일찍부터 서양문화를 익혔기 때문이라고 믿게 됐다. 서양의 근대 과학기술이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은 실학 사상가들이 오래 전에 조심스럽게 지적한 바지만, 엄청난 대국, 세계의 중심나라인 중국을 ‘죽은 돼지’로 만든 데서 증명이 된 것이다. 서양의 힘이 어떻게 저토록 강할 수 있을까? 흠모의 염(念)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서양의 몇몇 강국은 일본을 제재할 능력을 보이는가 하면, 한국에 와 있던 기독교 선교사들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 우리의 입장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서양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상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준 참으로 놀라운 사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서양관은 일본의 탄압이 심해질수록 두드러졌고, 그러한 모습은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서구문화에 대한 비교의 시각이나 비판보다는 그들 문화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서양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양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하나의 큰 자랑이요, 서양 학문을 논하는 것은 가장 학문적인 태도인 것처럼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서양인과 관계를 맺고자 했고 그곳에 유학을 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서양인의 사고와 그들의 생활방식에 익숙해지면서 한국의 전통이나 사상을 폄하하기까지 했다. 마치 옛날에 중국인의 관점에서 한국을 보면서 중화주의자가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소를 비롯한 서양 국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대외관을 펴며 남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사대주의자가 된 것이다. 서양관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 민족의식은 크게 변한 것이다.

3.1운동 이후 나타난 이러한 네 가지 면모는 한국의 전통적 민족주의 논리를 서구 근대의 모습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추세를 예견하거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컨대 위의 네 가지 중 세 번째의 일본에 대한 저항 중 일부 일본을 모방하려는 태도와 네 번째의 서방문화에 대한 선망의식의 경우는 향후 한국의 민족주의가 반일 또는 반서구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할 때는 매우 강렬한 반일, 반서구 감정의 바탕이 될 수도 있다. 열등의식은 모방이나 흠모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격렬한 저항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1운동 이후 달라지기 시작한 한국인의 민족의식은 이러한 몇 가지 원인구명과 함께 주목돼야 한다. 그러면서도 전통적 민족의식이 어느 정도는 계승돼 1960년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4.19혁명기까지 잔존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6. 서구 민족주의와의 비교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근대 민족의식을 다음 세 가지 점에 유의해서 검토했다. 첫째, 민족을 단위로 하는 독립개체가 어떠한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 그러한 민족개체가 전개되는 과정상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며, 셋째, 민족개체가 다른 개체, 특히 개인단위의 개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한국 민족의식을 서구의 근대 민족주의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민족개체가 부각되는 논리부터 살펴보자. 한국 근대 민족의식의 부각은 주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저항하는 것에서 비롯됐고, 그 논리는 기론(氣論)의 부각, 반(反)성리학적 입장, 관점의 상대화, 안민의 부국론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서구와 비교해 몇 가지 차이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민족의 존재의미가 달랐다. 서구가 로마라는 단일한 정치단위에서 출발해 전제군주국가를 거쳐 민족국가로 나타난 데 비해, 우리의 경우는 처음부터 민족국가였고 또한 전제군주제가 공화제로 바뀌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삼지 않은 채 국민국가로 진입했다.

국민국가의 성립내용도 서구와 다르다. 서구에서는 그것이 시민계급의 승리로 얻어졌음에 비해 우리는 계급문제가 아니라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거부라는 민족생존의 문제로 제기됐다. 서구의 국민국가가 자유주의라는 국제주의적 바탕에서 나타나 민족국가들끼리 연합하는 국제주의적 운동이 비교적 쉽게 용인된 데 비해, 우리는 국제성이나 세계적 안목이 좁았으며 민족의 내적 구심력이 어떤 경우보다 강했기 때문에 국제적 또는 국가연합적 성격이 매우 약했다. 서구에서는 민족국가의 존재에 경제구조의 변화 등 경제가치의 영향이 컸지만, 우리의 경우는 경제적 가치가 민족문제에 미친 영향은 오히려 매우 적었다.

민족국가 등장의 과정도 서구와 다르다. 서구에서 민족국가는 경제적 조건에 따른 갈등이 내외적으로 드러나면서 형성된 데 비해, 우리의 경우는 내적인 경제적 갈등이 없이 외세에 대한 저항에서 이루어졌다. 내적 대립과 투쟁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지도층을 중심으로 모든 계층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 서구의 경우 힘의 우위를 목표로 한 투쟁의 장으로 보는 국제관이었지만, 우리는 적국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공존의 장으로 하는 국제관이었다.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서구는 민족 담당 세력의 교차나 민족국가 상호 간에 격렬한 대립과 투쟁의 방법이 일반적이었음에 비해, 우리는 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협조와 조화의 방법에 따랐다. 여기서 서구의 민족국가 중 몇몇은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비슷하나, 그 추진방법이 달랐음에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 서구의 보수적 민족국가가 나치즘, 파시즘으로 나타날 수 있었음에 비해, 우리는 온건한, 그러나 강한 권위주의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민족과 다른 정치개체의 관계설정에서도 서구 민족주의와 다른 한국 민족주의의 특징이 드러난다. 한마디로 각 개체가 갖는 고유한 기능이 서로 보완된다는 기능적 유기체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개체가 저마다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개체의 관계는 평등하며, 이들 개체는 기능에 의해 서로 연결되고 기능이 상호보완성을 띤다. 이에 비해 서구의 경우는 개체의 평등성이 강조되나 그것은 산술적 평등에 그치고, 결국 자기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향유하기 위해 상대를 경쟁의 대상으로 혹은 억압의 대상으로 삼는 힘의 투쟁의 장이 됐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 민족주의가 서구와 구별되는 특징을 살펴보면서 한국 민족주의의 장래와 관련해서 다음 몇 가지 사실에 유의하게 된다.

무엇보다 nation-state라는 말의 사용문제인데, 그것이 민족국가라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 우리는 역사의 시작부터 민족국가 형태로 출발해 서구의 민족국가 발전과정과 달랐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민족의식 형성과정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국의 영향력은 통일과 관련해서 한국 민족주의의 장래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⁵⁾와 관련해서 산술적 평균이 아닌 기능상의 평등문제가 논의될 때 우리 민족 주체세력이 다른 개체와 갖는 개체 연계성 논리는 재조명될 것임도 유념해야 한다. 민족국가 간의 우열이나 갈등이 물리적 힘에 의해 판가름나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⁶⁾ 협동에 의한 공동의 장이라는 국제관을 목표로 하는 한국 민족주의의 전통적 면모는 재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민족에 대한 구심력은 경제상황에 따른 변화, 즉 계급보다 강하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민족통일이라는 명제에서 서구와 다른 이러한 특징은 한국 민족주의의 평가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한국 민족주의의 특징이 반드시 오늘날에도 적용되는가는 미지수다. 특히 3.1운동을 분기점으로 한반도의 상황은 그 전과 매우 다른 양태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3.1운동 이후 생존을 위한 무력투쟁이 계속되고 해방 후 강하게 불어 닥친 미·소를 양극으로 한 이데올로기의 혁명성, 일제의 군국주의적 과단성, 결단성, 보복성에 대한 은근한 모방심, 서구에 대한 열등의식 등은 한국인의 전통적 의식구조를 바꾸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한국 민족주의는 서구의 모형을 크게 닮아 가고 있는 것이다.

서구 민족국가의 전개과정을 닮아 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음 몇 가지 교훈을 새겨야 할 것 같다. 첫째는 국민국가 형성과정이 밑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생기는 경우 나치즘이나 파시즘 형태가 나타났다는 것이며, 둘째는 민족문제가 정치적 이용물로 전락될 때 계급문제와 얽혀 험하고 긴 분열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메테르니히가 가르시아 및 트란실바니아의 민족문제와 체코의 민족문제를 정치적 이용물로 사용해 남긴 깊은 상처가 잘 말해 준다. 셋째, 내적으로 민족의 구심력이 다져지면 그것이 외적으로 팽창주의적 성격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은 군국주의적 성향을 가중시키기 쉽다는 점이다. 넷째, 지역, 종교, 계급적 대립이 강렬할 때 자유주의 세력이 약화되고 그만큼 전체주의 세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⁷⁾ 다섯째, 민족의 담당세력이 현실에 적응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산업시민층은 급진 자유주의 성향을 띠어 노동운동이 격렬해지고 좌경화되어 계급투쟁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⁸⁾

이렇게 보면 한국 민족주의의 가치는 그 특징을 전통성에서 찾아 오늘에 재조명하는 작업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아울러 서구 근대 민족주의의 문제점을 우리의 상황에서 미리 걸러 막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역시 당면한 과제는 민족이라는 이름 속에 쌓여 온 증오의 마음을 쫓아내는 일이다. 증오가 생긴 원인을 규명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치료해야 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한 한국 민족주의는 비록 그것이 합법적 형식을 거치고 또 통일대업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급투쟁의 와중에 말려들거나 아니면 파시즘을 향한 궤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 1) 국방대학원 명예교수
- 2) 대체로 서구에서 국민주의라고 할 때는 프랑스혁명이 형성된 부르주아의 내셔널리즘을 말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주의는 시민혁명기에 태동했다. 그 주체가 된 중산층은 혁명의 주체이며 또 혁명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만큼 국민주의는 혁명과 관련이 깊다. 특히 서구에서 국민주의는 그것이 정착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특히 수많은 반혁명세력의 방해에 부딪혔다. 특히 복잡한 인종문제에 얽혀 있는 중·동유럽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오스트리아의 제상이었던 메테르니히는 가르시아와 트란실바니아 간의 민족갈등을 이용해 오스트리아의 군주제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체코의 경우는 자유주의적 성격을 띠는 도시민이 인종적으로 독일계였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체코의 독일화를 위해 메테르니히의 보수정부에 안내자 역할을 했다. 귀족과 농민 대부분이 체코인이었고 주로 이들에 의해 구성된 체코 의회는 민족주의에 저항하는 모순을 노정하기도 했다.
- 3) 기능개체의 관계를 인체에 비교해서 설명한 것은 율곡 이이(1536~1584)부터가 아닌가 싶다. 군(君)·신(臣)·민(民)의 기능적 협조를 몸의 조직에 근거해서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18세기의 홍대용은 화이(華夷)의 구별이 상대적이라고 하면서 “오장육부와 지절(肢節)이 한 몸뚱이의 내외(內外)”(*洪大容, 上同, 內集 卷4, 補遺, 蟹山問答, 36面*)라 하여 조선과 중국이라는 개체를 인체의 내외라는 유기체 관계로 설명한 바 있다. 19세기의 다산에 오면, “젊은이가 있기 때문에 늙은이가 있는 것이며 친인이 있기 때문에 귀인이 있는 것”(丁若鏞, 上同, 第1集, 詩文集 卷14, 跋 跋顧亭林生員論, 24面)이라 하여 개체마다 다른 기능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기체의 구심력은 인(仁)이며 이 인의 본질은 “타인에 대한 사랑”(上同, 論語古今注 卷3, 4 및 39面)이라고 했다. 이러한 유기체의 성격을 최한기(崔漢綺, 1803~1879)는 이목구비(耳目口鼻)가 체각이 전혀 별개의 기능개체가 아니라 신기가 통하는 신기의 기계로서 유기체적 관계에 있다(崔漢綺, 神氣通序, 1面)고 보았다. 동무이제마(東武 李濟馬, 1838~1900)는 그의 사상설(四象說)을 통해 인간을 유기적 통일체로 보아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하고, 인간을 윤리적인 면에서 보되 해부학적 입장에서 밝힌다(이 점에 관해서는 李乙浩, “東武四象說,” 『다산학의 이해』, 현암사, 312-313쪽 참조).
- 4) 이데올로기는 서구 근대문화의 산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났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관해서는 F. M. Watkins, *Age of Ideology: Political Thought, 1750 to the Pres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4, Cha. I 참조.
- 5) 오늘날 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몰리고 있는 이유 중에는 물질주의가 편만해졌다는 것, 관료집단의 무책임성,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패배함으로써 야기되는 외부 영향 등의 원인과 함께 반민주세력이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민주적일수록 내적 위협이 가중되는데, 그러면 참여의 폭이 확대되게 되고 자연히 기대감의 상승이 일어나며, 이것은 정부의 과잉부담을 야기해 무능한 정부로 만들고 만다는 지적이다. 서구 자유민주주의에 나타나고 있는 시민참여 확대와 정부의 통치능력 약화로 인한 위기는 다른 면에서 보면 수적 평준화에 바탕을 두고 시작돼 처음부터 안고 있던 문제였다. 이 점에 관해서는 Crozier, Huntington, Watanuk가 대표 집필한 *The Trilateral Commission의 간행물에 잘 나타나 있는 The Crisis of Democrac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5) 등이 참고할 만하다. 『민족지성』 1986년 5월호는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검토하면서 위의 책을 요약 소개하고 있다. 『민족지성』에 함께 소개되고 있는 글로는 *The Trilateral Commission의 책 외에 Jean Franclist Revel과 Branko Lazitch의 Comment les Democracies Finissent*(cat: PH, cov: PB, pp.462, 1984, June), S. P. Huntington의 “Will There Be More Democracies” (*Journal of Politics*, 1983에 게재), Thomas R. Dye and L. Harmon Zeigler의 *The Irony of Democracy and Uncommon Introduction to American Politics*, Max Casse의 “The Challenge of Participatory Revolution in Pluralist Democraci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5, No.3, 1984에 게재), Ekkart Zimmermann의 “The Study of Crisis in Liberal Democracies-Pitfall and Promise” (ibid.) 및 Ralph Juultjen의 *The Decline of Liberal Democracy* (1983) 등이 포함돼 있는데,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며 이러한 위기를 서구 근대기에 나타난 산술적 평균에 입각한 자유주의와 관련시켜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을 준다.
- 6) 민족국가 간의 우열이 물리적 힘에 의해 가능할 수 없는 경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아무리 작은 국가라도 상대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균전을 포함한 화학전을 시도한다거나 원자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흡사 카플란이 제시한 6개 국제모형 중 하나인 Unit Veto System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Morton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1954 참조.
- 7) 이러한 예는 자유민주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 흔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비스마르크 치하 독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자유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국민자유당과 진보당은 지역 간 대립과 계급 간 대립에 정교(政敎) 간의 의견상 대립으로 자유주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오히려 비스마르크에게 적절히 이용됐는데, 1874년 군비확장 법안 심의시의 대립을 계기로 이 두 자유주의 정당은 더욱 간격이 벌어져 결국 1886년에 가서 국민자유당은 비스마르크를 따라가는 어용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독일의 경우 이들 자유주의 정당이 서로 분열하고 대립함으로써 1890년대에 오면 이들은 더 이상 민주적 개혁운동을 말할 수 없게 된다. 자유주의 세력이 강력한 기반을 스스로 상실하고 새로운 개혁의지를 창의적으로 이끌지 못할 때 곧바로 1862년 전독일노동자협회와 같은 노동자 세력이 나타날 바탕을 마련해 주게 됐으며, 끝내는 1919년 1월 3일 독일공산당으로 개칭한 스파르타크스단(團)에 의해 베를린폭동이 야기되기에 이르렀다. 1919년에 탄생한 바이마르헌법 하의 정부는 민주적 성격을 띠고는 있었으나 자유주의 세력의 응집력이 약해 급진세력의 집합을 구군인(舊軍人)의 힘에 의해 이룸으로써 극우적 반혁명세력의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독일의 파시스트정권 수립과 연결됐음은 물론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세력이 서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한편으로는 과격한 좌파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적 극우파에 의해 양면의 공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8) 이러한 예는 1875년 이후 프랑스의 정정에서 엿볼 수 있다. 혁명 후 절대주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것 등 여러 요인도 있었으나, 당시 프랑스 정국은 다수소당(多數小黨) 분립으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 제3공화국의 담당자였던 온건한 산업시민층은 민족 중심세력 없이 불안이 연속되는 상황에서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고, 여기서 노동운동은 점차 격화되기 시작했으며 노동운동의 격화는 자연히 좌익의 급진적 이행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노동운동을 계급투쟁의 성격을 띠도록 유도했고, 사회는 견잡을 수 없는 대립과 투쟁의 도가니로 바뀌고 말았다.